

□한의학 시리즈-(完) 한의학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의학의 고유체계를 인정하라!

한의학, 동양학적 방식으로만 발전가능

박 찬 국

(한의대 교수)

우리 한의대는 93년 이래 한약본방에 휘말려 4년여를 허송세월하고 있다. 한의계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기에 이렇게 몇년을 싸우고만 있던 말인가? 얼핏 생각하면 한의학이 망하거나 없어지려고 이러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문제와 일이 많다 하더라도 한의학은 분명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 60~70년대에 한의학이 국민의 관심

밖에 있을때는 한의계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아니 있었다 하더라도 국민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한의계에 문제가 있음을 국민이 알고 있다. 해방후에야 한의계가 발전할 소지를 갖고 있음이 틀림없다.

오늘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이 우리 한의계에 거는 기대가 크데 비하여 우리 한의계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와 아울러 국민들의 한의학에 대한 의식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 한의계가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우리 한의학은 일체의 침략으로 19세기말 모든 제도권에 양방에게 밀려나고 정식 교육기관에서 없어졌다. 그리하여 일체의 강점에는 한의사제도도 없어졌다. 해방후에야 겨우 그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국가 보건행정에는 모든 양방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그러한 형편이다. 지금도 보건복지부에 한방 정책관을 둔다 하더라도 양방이나 약사들이 절대 반대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의학에 대한 나라안의 대립이 이렇다 보니 어느 능력있는 인체가 한의학에 들어와 연구하고 임상을 하려했는가?

그리하여 우리 한의학은 충분히 연구하고 발전해 오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단 한의학은 그 전수가 보존되고 전수되기가 매우 어려운 학문이다. 일제에 의하여 한번 그 명맥이 끊어졌다 보니 더욱 어려운 형편인 것이다. 게다가 해방후 서양 과학물질 문명의 수입으로 우리 학생들의 사고 체계는 완전히 객관적, 귀납적, 물질적, 분석적으로 바뀌어져 있으므로 주관적, 연역적, 정신적, 종합적 사고 체계를 요구하는 한의학의 학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아무리 학교에서 동양 철학적 사고 체계를 가르친다 하더라도 우리학문의 전반적 사고 체계가 서양적이고, 또 이제 사회 일상 생활마저 서양의 과학 물질적으로 바뀌어져 있음으로 더욱 동양철학적 사고 방식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므로 비록 강의실에서 음양오행론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밖에 나가면 바로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한의학이 진정한 한의학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다.

또 현재 한의계에서 한의학을 연구한다는 미명하에 서양 과학적 실험 방법을 다수 동원하여 실험을 하고 있지만 이는 단지 이미 알려진 한의학적 사실을 검증해 보는 것에 불과하고 한의학의 발전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의학은 동양학적인 방식으로 발전했다. 즉 실

글심는순서

1. 한의학의 본질
2. 한의학의 수난사
3. 한의학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험을 통해 발전한 것이 아니다. 자연과 사회, 사람을 관찰하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발달하였다는 것이다. 한의학이 실험과학적 방법을 버리고 명상과 관찰로 돌아가지 않는 한 앞으로 별다른 발전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한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직도 일질 과학적 방법에만 매달리고 있다.

둘째 한의계 밖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째 문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서양의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흔히 한의학을 비과학이라고 배척한다. 그러한 사람들이 한의학을 연구해 보았는지 아니면 한의학개론 책이라도 한번 읽어보았는지 묻고 싶다. 그저 막연히 한의학은 비과학적인 학문일 것이라고 생각만 하고 있지 않은지 걱정된다. 한의학이 비과학이라든 과학이라든 진정 무슨 뜻인지 다시 묻고 싶다.

또 다른 하나는 한의학에 거는 신비한 기대감이다. 서양과 학으로 안되는 것이 한의학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또 한의학이 아무리 좋고 한약이 몸에 좋아도 환자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낫는 병은 없다. 한의학도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하지 않는 한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이다. 단지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할 무한한 가치를 가진 학문이고 또 그러한 댓가를 받듯이 치루는 신승있는 학문일 뿐이라는 것이다.

우리동네 숨은 유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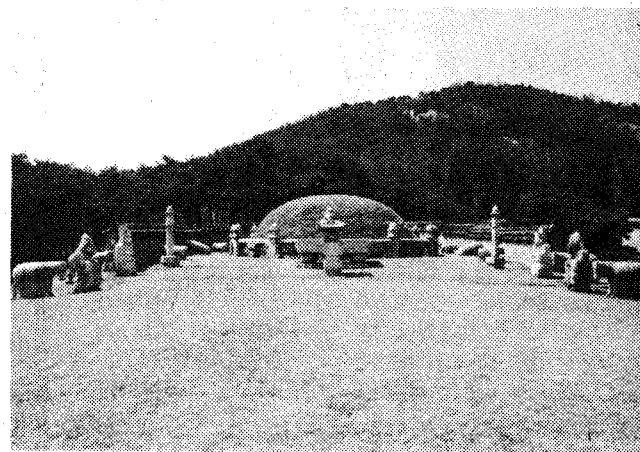
고향산의 의릉, 연화사, 경희중고 옆 전씨묘

신 용 철

(문리대 사학과 교수)

모두가 부러워하는 명당자리에 위치한 궁전같은 서울 캠퍼스 본관 뒤의 고향산(본명 천장산)은 해발 141m의 나지막한 바위산이다. 이 산 위에서 본관방향 남쪽으로 왼쪽 산기슭의 의릉(懿陵)과 회기동·회경동의 평원을 건너 위생병원과 시립대학이 있는 배봉산이 보인다.

의릉은 사적 204호로서 조선왕조 20대 경종과 그의 계비 선화황후 어(魚)씨를 모신 왕릉이다. 우리가 잘 아는대로 경종은 풍운과 비운의 여인이었던 장희빈의 아들로써 불과 4년동안 왕위에 있었던 불운



▲의릉(사적 제204호)

의 삼홍사(三弘寺)라는 조그만 사찰이 있다.

한편 현재 경희 중·고등학교 정문을 들어오면서 오른쪽 즉 학군단전물앞에는 붉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동산에 갖나

우리 경희캠퍼스의 본관을 내려다 보면서 아름다운 단풍에 쌓여 잘 조화된 학교 건물에 절로 감탄을 금치 못한다. 더욱이 동쪽쪽으로 멀리 수락산과 불암산을 바라보니 산자

우리학교 주변, 유서깊은 유적지 많아

한 단방의 왕이었다. 의릉의 정문에서 고향산을 바라보며 경내가 많이 축소되었다. 여기에서 지금 한창 신축중인 유장한 석조건물의 대강당이 우뚝 솟아 올라 보인다.

이 의릉은 우리 캠퍼스의 동북쪽으로 성북구 석관동에 위치하는데 천장산과 함께 아늑하고 자연의 환경이 아주 좋은 곳이지만 그동안 일반에게 개방되지 못하다가 금년 봄에야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회기동의 경희여중고 옆에 있는 연화사(蓮花寺)는 바로 의릉의 원찰로서 왕의 내세를 기원하는 사찰이었다. 의릉의 좌측 천장산 꼭대기에는 천태종

무 등의 침엽수에 쌓인 하나의 묘소가 보인다. 이 묘소는 전(全)씨의 시조인 환성군의 단소(壇所)로서 그 앞에는 전씨의 대종친회인 숭인재(崇仁齋) 건물이 길 건너편에 보인다.

고향산에서 동남쪽으로 마주 보이는 해발 1백m의 배봉산 좌측 회경동 산 7번지에는 순조의 생모였던 수빈 박씨의 묘인 회경원(徽慶園)이 있었다. 여기에서 오늘날 회경동이 라는 동명이 유래한다. 수빈 박씨는 뒤에 남양주시의 순강원(順康園)을 거쳐 오늘날 광릉의 평화복지 대학원 건너편 산속의 회경원으로 이장되었다.

락의 의릉지역과 그 일대의 아늑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우리 캠퍼스를 더욱 돋보이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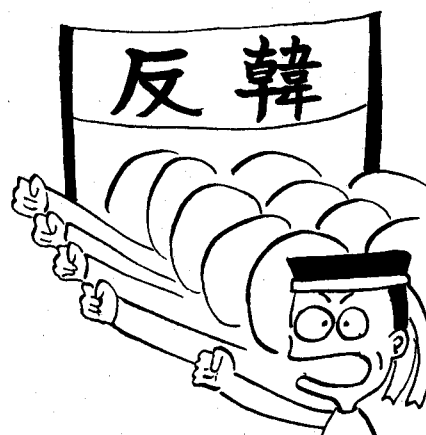
본관을 정면으로 해서 회기동·회경동의 건너편 배봉산의 자연과 가을단풍 너머로 멀리 아차산과 한강이 희미하게 보인다. 따라서 이곳은 옛날부터 우리의 조상들이 좋은 땅으로 여겨 살던 곳을 쉽게 알 수 있다. 북쪽에서부터 서울의 동부 평원을 가르며 한강으로 흘러 들어 가는 중앙천과 고향산 사이의 이 지역이야말로 우리 경희 캠퍼스의 원형 가슴과 같은 곳이다.

세시봉

(공평성 취재부지)

그들과 같은 민족이라 말하지 말라

여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한국을 '아버지의 나라'라 부르며 조국으로 생각해 왔다. 그들은 일제시대 독립운동하던 동포들을 따뜻하게 맞았고 한국전쟁때 피난 온 북한 주민들도 3년 동안이나 보살펴주었다. 또한 그들은 아직까지도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에 동화되지 않고 민족



이런 조선족 피해는 단순히 생각하면 개인과 개인사이의 사기 범죄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정부의 정책이 조선족 사기피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인의 중국 왕래는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조선족의 한국 왕래는 규제를 두어 한국인이 중국에서 사기를 치고

은 손쉬운 방법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조선족을 국적이 중국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으로 취급,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사적인 문제로 판단하고 정부차원의 개입을 꺼리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대응은 안일 말이다. 정부는 최대한 사기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야 하고 가해자가 돈을 내놓지 않으면 특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힘들다면 심사를 거쳐 피해가 확인된 조선족들에 한해 한국 방문을 허용, 자력구제의 길을 터줘야 한다. 그것이 그들이 조국으로 생각했던 나라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이며 민족애일 것이다.

한쪽에서는 통일 한국을 외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물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민족분단을 겪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나를 바꾼 이책

맹자

"맹자"

오백번 읽은

사람과는

소송하지 말라"

-논리와 정의가

공존하는 맹자의 정신세계

김 수 중

(문리대 철학과 교수)

나는 중등학교 시절에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하지만 때로는 종교적인 문제로 내적인 갈등도 많이 겪었다. 그런

창살 아래서 얻은 인생의 햇볕

게기들이 주로 작용하여 나는 대학에서 철학과를 택했다. 그런데 정작 철학과에 입학하여 본격적인 수업을 들어보아도 내가 기대했던 해답은 쉽게 찾을 수 없었다. 새로운 접이래면 이전부터 생각하던 철학적인 주제들에 대해 좀더 전문적인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씨름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였다.

대학교 2학년 가을도 기억된다. 유신시대 활동에 참가한 사람들이 대거 잡혀들어갔으며, 나도 한달 동안 유치장에 갇혀 있었다. 다섯 줄 지나자 면회도 허락되고 책도 들어올 수 있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읽은 책 중에 '맹자(孟子)'가 가장 감명 깊었다. 이후 나는 중국철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였고 나중에 석사논문도 맹자를 중심으로 하여 주제를 잡았다.

맹자사상의 어떤 점이 나를 감동하게 하였을까? 무엇보다도 맹자는 의(義)를 추구하는 정신이 강하다. 책을 펼치면 처음부터 이(利)를 쫓아서는 안 되고 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이 야기로 시작된다. 대장부로서 천하에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한 '호연지기(浩然之氣)'장구는 너무나 유명한 명문이다.

둘째로, '맹자'에는 민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정치사상이 있다. 포악한 군주는 방벌해도 좋다는 그의 혁명사상은 동양의 루소라 불리는 청초의 황종희에게까지 역사적으로 깊은 영향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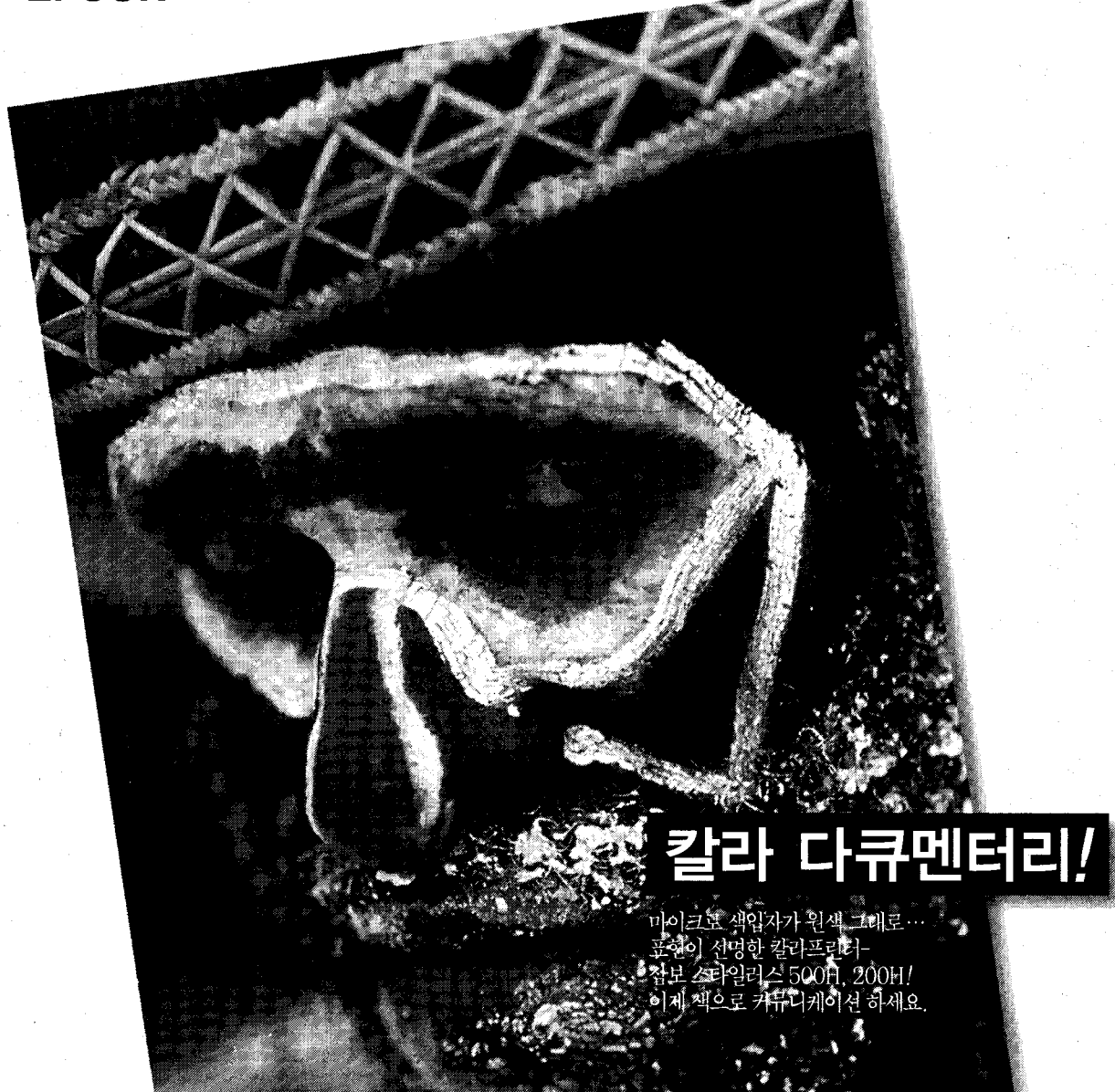
세째로, 맹자는 성선설을 비롯한 인성론과 도덕철학을 자세히 개진했으며 이는 송대 주자학과 조선 성리학의 근본이 된다. 이 부분은 인간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맹자의 대답이며, '논어'에서 제시한 인인군자(仁人君子)의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한 것이다.

네째도, 맹자는 '부동심(不動心)'이나 '존심양성(存心養性)' 등 수양의 방법론을 정립하였다. 그 이론의 핵심은 자율적, 자각적 인성함양론이다.

마지막으로 맹자의 한 매력은 그 명쾌한 문체에 있다. 옛부터 "맹자를 오백 번 읽은 사람"이라고는 소승을 하지말라"는 말이 있다. 그런 사람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의 논리적인 서술과 날카로운 논변은 독자의 가슴을 시원하게 한다.

우리의 고전에 대한 학생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 두 권을 들려 하면 나는 맹자와 장자를 들고 싶다. 장자가 상식의 허상을 꿰뚫고 심오한 철리를 깨닫게 해준다면 맹자는 인간과 도덕의 본질을 가르쳐 준다. 특히 맹자는 우리의 정신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선비정신'의 뿌리가 되었다고 나는 믿고 있다.

EPSON®



칼라 다큐멘터리!

마이크로 섀임자가 원해 그대로...
표현이 선명한 칼라프린트-
삼보 스타일러스 500H, 200H!
이제 책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세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연말연시-

정성이 가득한 카드를 만드세요!

폼폼한 칼라프린트 삼보 스타일러스로 따뜻한 정성이 담긴 카드를 만드세요!
삼보 스타일러스 500H와 200H를 구입하시는 모든 고객에게 개성이 가득 담긴 카드를 만들 수 있는 포토 아티스트 팩 S/W와 아래한글 3.0b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올 연말연시를 색다르게 보내는 절호의 기회-지금, 가까운 삼보 대리점으로 오세요!
기간: 1996년 11월 20일 ~ 12월 31일



사은품

- 포토 아티스트 팩 S/W (카드, 캘린더, 명함, 주소록 작성용 CD-Title)
- 카드, 연하장용 전용지 (겉지, 속지, 봉투, 명함용) 30매
- 아래한글 3.0b(번들용)

720DPI, 표현이 꼼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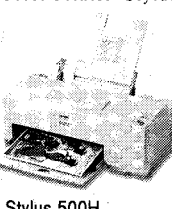
사진을 보는 것처럼 또렷합니다.
꼼꼼한 표현이 원색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래픽, 이미지 인쇄도 초고속 프린팅을 실현합니다.

유지비 싸움이 꼼꼼하다!

스타일러스를 사용하여 1일 평균 2매씩 3년간 칼라 출력력을 하시면 6만원에서 20만원의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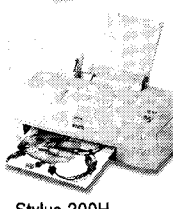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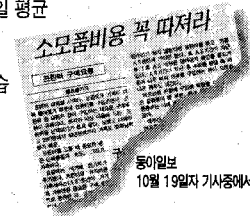
Photo Image

Color Printer - Stylus



Stylus 500H

720DPI 해상도, 정밀도 4PPM, 출력 1.5PPM



Stylus 200H

720DPI 해상도, 정밀도 3PPM, 출력 1.2PPM

삼보컴퓨터

홈페이지 주소 http://www.trigem.co.kr.
서울/경기/02-365-3535 기타지역/080-535-3535